

거듭 태어납시다

전 병 호*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또한 물은 무한재가 아니며 제한된 자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물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록 물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물부족 현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전혀 실감하지 않는다.

옛그제 물난리를 만났는데 무슨 물이 부족하냐고 생각하게 된다.

최근 남북지방에 가뭄으로 큰 기근 현상을 겪었지만 이제는 언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이제 이런 일은 없겠지 하고 넘기려 한다.

기근도 홍수도 일과성으로 넘기려 든다. 쉽게 망각하곤 한다. 피해를 입을 당시는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듯 각종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무한 투자라도 할 것처럼 야단 법석이지만 그 일이 있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이와 같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국민성일까? 아니면 수자원 전문가들의 잘못일까? 물론 어느 한쪽의 책임일 수도 있고 둘 다의 책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몫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물 문제를 포함하는 주요 프로젝트에서는 그 중요성은 도외시한 채 물이 차지하는 적은 경비(그것도 낮게 책정된) 때문에 구조와 같은 타분야에

서 일괄 처리하고 그나마도 물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처리되면서도 버젓이 통하는 현실, 교량공사에서 세굴과 같은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던 처량한 과거, 정겨움이 가는 하천 환경과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목적과는 완전히 역행되는 도시 소하천 복개, 정밀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각종 설계심사, 전문가도 없으면서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려는 암체적 발상,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이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그것도 잘못 적용하는) 졸속함, 하천 수질은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愚), 수자원관련 종사자수에 비해 너무도 빈약한 학회지 연구논문 편수, 재해 발생시에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보다 기술자가 희생당하는 실태, 도로나 교량은 투자결과가 눈에 바로 나타나므로 적극 투자하면서 물에 대한 투자는 그 결과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전시행정의 희생, 확률 개념을 악용한 인재(人災)를 천재(天災)의 탓으로 돌리고 무사히 넘기려는 무사안일, 임기중에 문제만 발생되지 않으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자기 이기주의 등등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한다.

학계의 실태는 어떠한가. 과연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물(수자원) 전공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무튼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시기이다. 앞으로 물 부족시대의 도래가 예측되고 치수와 이수에 추가하여 하천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그래서

*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장래 물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하고 그 해결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할 후계들이 없다는 사실, 과연 이같은 실태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금년부터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 단체가 맡아야 할 몫으로 넘어 오면서 이들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 문제를 담당해 줄 후계들이 없어도 무방한 것일지.

우리 수자원 전문가들은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전의 우리 그 자체로는 당면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거듭 태어나고 새로와져야 한다. “내탓이요”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이다.

지방 자치시대의 출발과 함께 어느 도(道)는 설문을 통하여 어느 도(道)는 홍수대책을 위하여 또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 자치시대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 지방화 시대는 물 문제의 지방 분산으로 우리의 역할이 분산되거나 축소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되게 되었다. 지방 정부간의 예상되는 물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기 지방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와 분석 자료, 대책 등을 제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분석기법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기술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내 고장만의 분석으로는 부

족하므로 상대 고장, 나아가서는 내 고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고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의 분석 수준은 가일층 높아져야 한다. 또한 새롭게 살기좋은 지방정부를 키워나가려는 도백들의 출발, 더욱이 지방정부의 할 일이 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리고 할 일이 점점 늘어갈 중앙정부의 몫까지도 담당해야할 시점에서 우리 수자원 전문가들도 이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좀 더 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까지도 하여 새출발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금년을 새로운 각오의 해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이 관이든, 기업이든 또는 개인이든 간에 수자원의 보전이나 수자원분야의 발전에 해를 끼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제지하는 태도, 소극적인 방어태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적 자세를 갖는 태도, 산·학·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하는 것만이 서로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협조자의 자세,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술적, 경제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이와 같은 거듭 태어나는 자세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자기 고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과 방안을 찾으려 하는 이 때에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낙후된 수자원분야를 살리고, 교육 또한 활성화하도록 뜻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모두 거듭 태어납시다.

새롭게 태어납시다.